국일암 인법당 '最古 입증' 상량문 발견

8월 19일 발견 현장 공개
1669년 쓰인 상량문 확인
옹정12년 중창문 등 발견
"한국 最古 인법당 증거"
경남도, 유산 지정 미온적
명법 스님 "지정돼야 불사"

합천=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이 8월 19일 국일암 인법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법당임을 입증하는 상량문을 공개하고 있다.

합천 해인사 국일암(감원 명법 스님) 인법당(因法堂)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법당임을 입증하는 상량문이 해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됐다.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은 8월 19일 현장을 공개하며 "지난 7월 13일 국일암 인법당 해체복원 공사 중 '강희8년(1669년)'이라고 쓰인 상량문과 '옹정12년(1734년)'이 쓰인 중창문, 묵서 등 중요 유물들 발견됐다"고 밝혔다.

350여 년 동안 원형 그대로 보존된 채 발견된 이 문서는 국일암 인법당의 창건과 중창 연혁을 확정하는 희귀한 사료다. 상량문은 건축 당시의 지형과 구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벽암 각성(1575~1660) 선사의 주석처라는 역사적 맥락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불교사·건축사·민속사 연구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다.

발견된 상량문에는 '국일암(國一庵)'이라는 암자명이 벽암 각성 스님의 시호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화재로 소실된 뒤 제자들이 힘을 모아 다시 중창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또 동쪽 계곡물, 남쪽 연지, 서쪽 누각 등 당시 지형과 건축 양식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인법당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명법 스님의 설명이다. 발견된 상량문의 기록은 건축 연혁뿐 아니라 조선 후기 산사 공간 구성과 사찰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를 제공한다.

명법 스님은 "국일암 인법당 상량문은 '긴 상량문'에 해당하며 △서사(序詞) △본사(本祠) △육위송(六偉頌) △결사(結詞) △첨사(添詞)로 이뤄진 상량문의 완전한 내용 구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전해지는 사찰 상량문 가운데 이처럼 완전한 구성을 갖춘 상량문은 13점에 지나지 않고, 그중 18세기에 조성된 상량문이 발견된 건물은 대부분 보물로 지정됐다. 연대와 내용 구성이 이들 문화유산보다 앞서는 국일암 상량문은 그 자체로 문화유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목재 연륜연대 조사에서도 기둥·보·대공·반자 등 주요 부재가 1669년 벌채된 목재임이 확인됐다. 이는 상량문에 적힌 연대와 정확히 일치하며, 국일암 인법당이 17세기 건축 당시의 구조를 오늘날까지 유지해 왔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다. 또한 1972년 수리 당시 성원 스님이 상량문과 중창기를 봉인해 원위치에 다시 보관했던 사실이 확인돼 전통적 관리의 지혜와 정성이 함께 입증됐다.

이처럼 지역 문화유산 지정의 당위성이 확보됐음에도, 지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 현지 조사에서 "수리 이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명법 스님은 "대부분의 문화유산 지정이 해체 공사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체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정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된 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그럼에도 '해체와 수리를 끝낸 후에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입장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일암 인법당은 이미 문화유산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면서 "만약 도문화유산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에 따라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올해까지 국고사업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예산으로 환수해야 하기에 지정 여부에 대해 빠른 결정을 해 달라"고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에 요청했다.

'케데헌'의 나라엔 불교가 있다

한국관광공사 지역 홍보 영상
경상·전라 편, '사찰'이 주 무대
공개 한 달 만 1000만 뷰 돌파

"경주 불국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본부네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탑 앞에서 춤추는 게 이렇게 멋질 일인가!" "Korea is amazing!"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사찰을 주무대로 촬영된 한국 홍보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한국 홍보 영상 'Echoes of Korea' 시리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월 검무(劍舞)로 경상도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은 '경상 편(Echoes of Korea-Where Energy Never Sleeps)'과 승무(僧舞)로 전라도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전라 편(Echoes of Korea-Where Beauty Moves Heart)'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8월 21일 현재 조회수가 947만 회, 1126만 회를 기록했다.

'경상 편'은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도깨비 탈을 쓴 무용수들이 불국사 대웅전과 자하문 앞에서 칼춤과 사자춤을 선보이는 역동적인 영상이 눈길을 끈다. 또 경주 창림사지를 배경으로 검무가 펼쳐지고 국립경주박물관, 김천 사명 대사 공원, 황룡사지 8층 목탑을 형상화한 경주 엑스포공원 등 불교문화유산이 차례로 소개된다.

'전라 편'은 해남 도솔암과 순천 선암사에서 펼쳐지는 승무로 시작된다. 승무는 무복(舞服)이라는 승복을 입고 추는 춤으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흰 장삼과 고깔, 붉은 가사가 특징이며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사찰을 무대로 어우러지는 승무의 유려한 몸짓으로 우리나라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두 영상 모두 불교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까지 뉴욕 타임스퀘어를 비롯해 도쿄, 베이징, 방콕 등 16개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 전광판을 통해 이번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을 선보이고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에는 'Feel the Rhythm of Korea'를 주제로 서울, 부산, 전주의 홍보 영상 3편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을 합치면 총 2억6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여수령 기자



한국관광공사 'Echoes of Korea' 전라 편의 한 장면. 해남 도솔암에서 승무가 펼쳐지고 있다.

"월탄 대종사, 미륵세상 구현 발원 선지식"

금오미룡문도회 · 법주사, 월탄 대종사 선양 학술대회
불교신문 · 한국불교학회 주관
대종사 수행 · 사상 등 조명해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를 역임하며 한국불교 중흥을 이끈 미룡당 월탄 대종사(1936~2022)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금오미룡문도회(문장 성운 스님)와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8월 21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룡당 월탄 대종사 선양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스님의 열반 3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불교신문(사장 효명 스님)과 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가 공동 주관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보광 대종사(동국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월탄 스님의 수행·신앙·종단·사회관을 조명하며 스님의 면면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맞닿아 있음에 주목했다.

금오 스님을 만나 출가해 시심마(是甚麽) 화두를 받은 월탄 스님은 영축총림선원, 해인총림선원, 조계총림선원, 덕숭총림선원, 봉암사 선원 등에서 45안거를 성만했으며 사형 성림 월산 스님에게 인가를 받은 선사였다. 이


보광 스님이 '월탄 대종사 선양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같은 수행력을 바탕으로 월탄 스님은 '미륵용화정토' 구현을 발원했다.

보광 스님은 "월탄 스님이 전개한 미륵십선계운동은 이 땅을 용화정토로 만들어 미륵부처님의 세계를 발원하고 있다"면서 "사회관 역시 미륵정토를 꿈꾸면서 사회정화를 미륵십선계로 실천할 것을 지향했다. 이 같은 월탄 스님의 미륵정토의 실천과 자비사상은 제자들이 이어받아 실천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화운동 당시 '불법에는 대처승이 없다'며 할복했던 육비구 중 한 명이었던 월탄 스님에 대해서는 "이차돈의 순교에 버금가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을 보여 줬다"고 보광 스님은 평가했다.

문도를 대표해 인사한 금오미룡월탄문도회 문장 성운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원)는 "월탄 대종사는 화두를 참구하는 선객(禪客)이시면서도 미륵신앙을 중시하셨고, 선과 교를 아우르는 폭넓은 안목으로 후학들을 이끄셨다"고 추모했다.

신중일 기자

종교로 살펴보는 '전쟁과 평화'

불교평론 · 아시아종교평화학회 공동 심포지엄

불교평론과 아시아종교평화학회는 8월 29일 오후 1시 서울 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에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종교'를 주제로 공동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찬수 아시아종교평화학회 부회장은 '전쟁의 이유, 종교의 자리, 명멸하는 평화'를, 박문수 우리산학연구소장이 '한국전쟁과 그리스도교'를, 원영상 원광대 교수가 '태평양전쟁과 일본불교'를, 홍미정 단국대 교수가 '십자군 전쟁과 이슬람의 평화' 등이 발표된다.

불교평론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쟁과 관련된 종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2025년 동호불교 8월 백중 물품 행사 품목

물품 소진시 마감 됩니다 ※ 택배비도 포함된 가격이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7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60,000원
추가옵션 (100개이상)
버선 300원
양말 35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속옷 세트 100개 이상 13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2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돈그림 짚신 100족 1BOX 210,000원 (1세트 3족)

종이지옷(봉투)
지옷 200개 1BOX 150,000원
수자 200개 1BOX 130,000원
동자선녀 200개 1BOX 15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수입홀초
원백 20개 7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수입
7일초 20개 57,000원
5일초 24개 60,000원
3일초 40개 65,000원
1일초 108개 95,000원
15일초 12개 90,000원
30일초 4개 15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국산홀초
원백 20개 75,000원
등신불 25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최상급 -국산(흰색)
7일초 20개 90,000원
5일초 24개 95,000원
3일초 40개 95,000원
파라핀 1BOX(1.8L/12개) 65,000원

백중 행사 용품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6년 달력 행사중 (9월 30일까지 주문시)
26년 달력 9월 30일까지 주문시 할인혜택 받아보세요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혜택 받아가세요'
오색종이 100개 50,000원
삼베 50개 100,000원
삼베옷 (모자포함) 20개 120,000원
군웅 50개 100,000원
소창 50개 100,000원
길배-대 10개 150,000원
영가만원등 100개 230,000원
오색길배 (천왕길배) 30개 135,000원
비석위패 (향나무) 100개 270,000원

백중행사 기도 접수 받습니다-실사 25,000원(90X45)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 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7치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12000원)※

보시용품 대량 구매 준비끝!!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예금주 :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401-1